

매핵기(梅核氣)란?

항상 목구멍(인후)안에 동전만한 무언가가 걸린 것 같아 답답함을 느껴서, 뱉어내려고 해도 나오지 않고,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는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인후 부위에서 가슴부위까지 답답함을 느끼는데,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으면 답답한 것이 풀리는 경우도 있다. 가래를 뱉으면 오래된เสม와 같은 가래가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보지만, 원인을 못 찾거나, 인후염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봐도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다. 내과에서는 역류성식도염이 원인인 경우도 있어 감별치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라고 하며, 원인은 인후부 자체의 염증이나 기능 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증상으로 본다. 즉 기쁨이나 노여움 등이 심하거나, 신경을 과도하게 쓰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울체된 열이 인후부에 쌓여서 매핵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주로 매핵기 증상은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불안 초조할 때도 있고, 얼굴로 열이 올랐다 내려다 하거나, 불면증 같은 신경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매핵기의 치료는 인후 자체의 치료보다는 전신적인 신체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면서, 울체된 화기를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한방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다.